

U대회 지역대학, 열기 vs 한산 '극 과 극'

지역 대학들이 광주에서 열리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지나치게 흥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규모 국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을 보태면서 광주를 찾는 전 세계 젊은 대학생들과 지역 대학생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교류의 공간을 조성하거나 대학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커녕, '강 건너 불구경'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1일 광주·전남 대학들에 따르면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 대회 분위기를 띄우고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취지의 문화·공연 행사 등을 다채롭게 기획중인 대학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전남대와 조선대의 경우 2주간 열리는 대회 기간 내 대회 성공 개최 및 분위기 '붙임'을 위해 준비중인 문화 행사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대·조선대·광주대는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전야제와 성화

수영·축구 열리는 남부·호남대, 공연·응원전 부산 광주여대 항공서비스학과생 250여명 시상요원으로 전남대·조선대, 대회 기간중 문화행사 없어 아쉬움

봉송 행사에 참여하는 게 고작이다. 경기가 열리는 남부대·호남대·동신대·동강대는 다소 다르다.

이들 학교의 경우 경기 열리는 날마다 1시간 규모의 문화 공연 등을 추진중이다. 남부대의 경우 수영 경기장 인근에 공연장을 만들고 경기가 열리는 날에 맞춰 사물놀이, 무도 시범, 통기타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마련해 관람객들에게 보는 재미를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호남대도 축구·배구 경기 개최일마다 마술 공연과 대학생 응원단 공연을 추진

하고 있다.

호남대는 자체 인터넷 방송국(유니브로)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미 대회 경기결과와 선수들 뒷 얘기를 취재해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적극적인 대회 알리기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동신대와 동강대도 경기가 열리는 날마다 1시간 가량 댄스·연주 공연 등으로 선수단을 격려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하지만 이들 대학들의 문화 행사도 단순 일회성 공연에 머물러 미흡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광주여대도 항공서비스학과 학생 250여명이 시상 요원으로 활동하지만 대회를 통한 학교 홍보나 지역학생들과 어울리는 문화 행사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대학측이 경기 전 열리는 단순 공연 뿐 아니라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자신들의 학교를 홍보하고 지역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2003년 U대회가 열렸던 대구의 경우 경북대가 세계대학문화엑스포를 주도하거나 참가국 선수를 초청해 문화체험 행사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나선 것과는 사뭇 다르다.

A대과 관계자는 "학생들 방학기간에 열려 참여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 문화행사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김형호·박기웅 기자 khh@



U대회 선수 위한 헌혈 행렬

광주 서석중·고등학교 교직원들이 1일 대한적십자사 이동헌혈차량 앞에서 헌혈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광주유니버시아드 선수촌과 인접한 이 학교 70여명의 교직원들은 U대회 참가선수들이 갑작스런 사고로 혈액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 단체 헌혈에 동참했다.

/특별취재단=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4개 교육단체, 교육재정 확보 한목소리

범도민 서명운동 선포식도

전남지역 4개 교육 관련 단체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한 목소리로 공동 서명을 냈다.

전남교육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 전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남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4개 단체가 1일 오후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범도

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4대 단체는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농·산·어촌 교육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주문했다.

4개 단체는 이날 서명을 통해 "정부가 5월13일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는데 안타깝게도 농·산·어촌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전남교육의 심각한 위기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선 교부금 배분기준을 문제삼았다. 산정 기준을 현행 학교수 55.5%와 학급수 13.8%, 학생수 30.7%에서 학교와 학급 수 반영비율은 최대한 낮추는 반면 학생 수 기준을 50%까지 올린 점을 우려했다.

새로운 기준대로라면 전남교육청에 내려올 교부금이 450억원 가량 줄어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이들 단체는 또 교직원 정원 감축 철회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강요하는 교육재정 축소 중단을 촉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

'증여세 탈루' 본격 수사

신원그룹 박성철(75) 회장이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신원그룹 본사와 박 회장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내부 경영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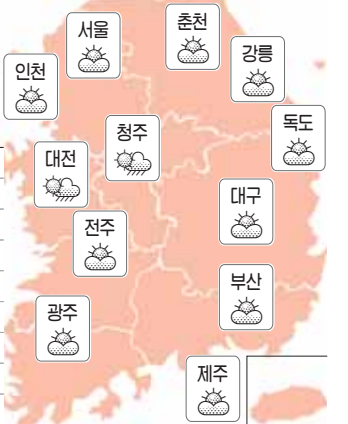
해돋이 05:22 해질 19:47
해짐 19:51 달짐 05:27

구름 낀 U대회 D-1

남해에서 동쪽으로 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오후에 구름 많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구름많음	18/29	보성	구름많음	16/27
목포	구름많음	19/26	순천	구름많음	18/29
여수	구름많음	19/26	영광	구름많음	17/27
나주	구름많음	16/29	진도	구름많음	17/27
완도	구름많음	19/27	진주	구름많음	17/28
구례	구름많음	16/30	군산	구름많음	17/27
강진	구름많음	16/28	남원	구름많음	15/28
해남	구름많음	17/27	홍산도	구름많음	19/24
장성	구름많음	16/28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서~서	0.5~1.0	남서~서	0.5~1.0
남부	면바다	남서~서	0.5~1.5	남서~서	0.5~1.5
남해	앞바다	남서~서	0.5~1.0	남서~서	0.5~1.0
남해	면바다(동)	남서~서	1.0~1.5	남서~서	1.0~1.5
남해	면바다(서)	서~북서	1.0~1.5	서~북서	1.0~1.5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운동	50
빨래	8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2:17	07:37
	14:14	19:36
여수	밀물	썰물
	09:01	03:07
	21:43	15:00

주간 날씨

3(금)	4(토)	5(일)	6(월)	7(화)	8(수)	9(목)
20/29	18/29	20/30	20/28	21/28	22/29	22/27

軍, 해양 재난사고 초동조치 능력 강화

해군, 목포 3함대 등 3개 '구조작전대' 창설

해군은 1일 세월호 참사의 후속 조치로 해양 재난사고 초동조치 능력을 강화하고자 1함대, 평택 2함대, 목포 3함대에 각각 '구조작전대'를 창설했다고 밝혔다.

동해, 서해, 남해를 담당하는 이들 함대에 설치된 구조작전대는 진해 해난구조대(SSU)의 일부 기능을 각 해역 함대에 배치한 것이다. 구조작전대는 담당 해역에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초동조치와 구조활동을 하는 것이 기본 임무로, 대우급 간부가 지휘하며 항공인명구조 능력을 갖춘 심해잠수사 15~17명으로 구성된다.

구조작전대는 표면공급잠수시스템(SSDS)과 스쿠버 같은 잠수장비뿐 아니라

라 사이드스캔 소나(음파탐지기), 수중 영상 탐색기, 이동형 갑판잠배, 15인승 고속단정도 갖췄다.

각 함대가 운영해온 기존 '잠수반'은 8~10명으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스쿠버 장비만 보유해 단순한 수준의 해상·공중 인명구조만 가능했다. 심해잠수사가 공기통을 메고 잠수하는 스쿠버 기법은 수심 30m 이상의 잠수에는 제한이 따르고 수중 체류 시간도 짧다.

그러나 구조작전대는 수상함·고속단정이 탑재한 표면공급잠수시스템과 연결된 호스로 공기를 공급받아 수중 체류 시간이 길고 수심 58m까지 잠수할 수 있으며 통신선으로 수상 구조대와 교신도 가능하다. /연합뉴스

"경찰이 임의동행때 거부권 안 알리면 인권침해"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경찰서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이 임의동행을 강요하면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조모(37.여)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경기도지방경찰청장과 부천원미경찰서장을 상대로 소속 경찰관들에게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해당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1월 조씨가 성매매를 했다는 신고를 받고 손님을 가장해 조씨의 오피스텔에 들어가 임의동행을 했다. /연합뉴스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